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2.10.(금) 10:30, 이호정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과 함께 '북한 주민의 생명권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태영호 의원의 개회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환영사,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의 축사와 알톤 영국 상원의원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토론회 종료 후 16시 30분에 통일부 장관은 장관실에서 알톤 상원 의원과 별도 면담을 갖고 북한 인권 개선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열병식 녹화중계 보도를 보면 기존 열병식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통일부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어제 열병식 보도를 보면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주석단 귀빈석에 등장한 모습 또 다정한 부녀의 모습 등이 나왔는데, 후계자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통일부의 기존 평가보다 조금 더 진일보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개최된 열병... 어제 중계된 열병식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공개보도를 포함해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의 후계자 관련... 후계자 논란 관련해서는 미리 말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계 구도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 등으로 볼 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연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동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